

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사람은 단연 케네디 부인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권위'를 상징하는 정치 패션문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활달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변화 노선을 택한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서 과거처럼 화려한 장식으로 권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소박하고 편안하며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대중을 이끄는 패션 개념의 변화를 발견한다.

권력은 건축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도시건축 속에는 권력을 발견한 이상헌 씨는 '현대 건축의 담론과 공간의 정치학'에서 권력과 힘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도시공간을 발견한다. 특히, 한국의 건축문화는 1960년대의 강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와 자본권력 등에 기생하면서 비자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저자는 도심 재개발 지역과 강남권 위주의 개발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문화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상성과 취향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밝힌다.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문화 중 하나가 '광고'다. 그런 점에서 영화평론가 유지나 씨는 우리 생활에 익숙한 광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를 찾는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식적인 표현을 문구로 활용하거나, 유치찬란한 수식어로 이루어진 구호들을 나열하거나, 성차별적 코드에 지배받는 광고형식이 그것이다. 유씨는 글의 말미에서 우리 사회의 광고들이 대체적으로 지배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 광고 속 목소리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임을 지적하면서 그 속에 담긴 또 하나의 권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일반 공익광고의 핵심 주제를 분석하고, 실제 광고 속 목소리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구성패턴을 정리한 유씨는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들어 광고 속에 숨은 권력의 실체를 찾아낸다.

한국사회에서 '공부에 방해를 주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만화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이재현 씨의 글도 신선하다. 그는 '만화와 권력-똥폼잡는 권력들에게 고향'이라는 글을

통해서 권력에 저항하는 만화문화를 소개한다. 이재현 씨가 거론하는 것은 만화책을 보는 것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권력횡포'다. 그는 권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만화매체가 갖고 있는 탈권력성을 말하고, 만화가 주변부의 문화로 남았음을 강조한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드러난다. 주류 위주의 문화만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만화는 제도권의 문화자본 취득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논리로 극단적인 검열을 받는 주변문화로 남았다. 글을 쓴 이재현 씨는 만화가 알록달록 달콤한 색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량한 면을 담고 있지만 이런 허황됨과 불량함이 우리 삶의 황당함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화를 하찮게 여기거나 유치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접해야 할 글이다.

《디자인 문화비평 02》는 '디자인 정치권력'이라는 특집 아래 디자인 문화 전반에 숨은 정치권력의 실체, 그것의 영향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역사를 논한다. 익숙하기 때문에 얼핏 지나칠 수 있는 디자인 문화의 권력, 그것을 고해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바라본 필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

김현연 기자